

INDEX

◎ 한국IPG의 활동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 01
- 한국관세청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개최 02
- 무료 지재교육프로그램 (E-learning) 제공 03
- '한국지재보호정보세미나' 개최에 대해 05

◎ IP를 알아

- 한국 IP뉴스 06
- 「신·지재최전선은 지금」 07
 - 미래의 스마트 가전이 보이는 '창' 07
 - 활용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 08



이와타니 정권의 스피커, © 한국IPG

한국IPG 회원 등록

http://renew.jetro-ipr.or.kr/info.asp?br_main=9

한국IPG는 일본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비는 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입추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씨가 덥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고 계시는지요? 더위를 이기는 대표적인 한국음식은 삼계탕, 냉면, 콩국수, 팔빙수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CAUTION

〈한국IPG INFORMATION〉에 게재되어 있는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 하에 본지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 한국IPG의 활동

지식재산기본법 시행

지금까지 다수의 소관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지식재산 정책을 통일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기본정책 및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7월20일자로 지식재산기본법(법률 제10629호)이 시행되었다. 일본에서는 지적재산기본법이 2003년3월에 시행되어 매년 결정되는 지적재산추진계획 하에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복수의 의원발의법안이 제출되는 등 그 성립이 요구되어 왔으나 이번에 드디어 성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법률은 총40조로 구성되어 지식재산의 정의를 비롯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5년마다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정하는 국회지식재산기본계획 책정,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책정 등을 시행할 것을 정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식자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설치 등 여러 가지 검토과제가 있지만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정비가 향후 한층 더 진전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이 법률의 제정을 기념해 지난 7월 7,8일에 「국가발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어 김형식 국무총리, 프랜시스 거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사무총장, 이와이 요시유키(岩井良行) 일본 특허청 장관(사진)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관계자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한국관세청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개최

모방품 근절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

한국 관세청은 2011년 7월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1층 B홀에서 위조상품 비교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8개의 기업이 참가하여 2만여물품을 비교 전시한 본 전시회는 모방품의 폐해를 널리 알려 모방품의 소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열린 행사입니다.

최근 한국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에서도 요넥스, 닌텐도 등 15개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한국IPG는 관세청의 협조 공문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기업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모방품 구입 피해 예방을 위한 한국 IPG에서 제작한 정품확인요령 (IPG 인포메이션 9호 참조) 을 참관객에 배포하였습니다.

일본기업 이외에 루이비통, 샤넬, 버버리 등 유럽기업13사, 나이키, 폴로, 등 미국기업15사 등의 외국기업이 참가했으며 한국기업은 삼성

전자, 현대모비스, LG전자 등 17개의 기업이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자사상품의 진위판별법을 소개하였 습니다.

주요 전시 품목으로는 가방, 의류, 시계, 화장품등의 생활용품 뿐만아니라 식품, 주류, 한약재 등, 의약품, 자동차 부품등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까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 그동안 전량 폐기되었던 의류와 운동화의 상표를 떼고 별도의 디자인을 삽입하여 개발도상국에 보내는 재활용 체험과 모방품속에서 진품 찾기 게임, 모방품 자진반납 등의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역대 전시회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지식재산분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관세청은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앞으로 외국기업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IPG는 주한 일본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청과 TIPA (무역관련 지식재산보호협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 무료 지식재산권 교육프로그램(E-learning) 제공

한국발명진흥회(KIPA)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프로그램(E-learnin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기업이 교육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활동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가운데, 한국 현지직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꼭 참가해 주십시오.



1.참가자격

일본기업, 일본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규, 파견 등과 상관없이 가능)이 대상이 됩니다. 단, 한국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2.참가방법

IPAT홈페이지에서 회원ID를 취득(www.ipat.or.kr, TOP화면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페이지)한 후 ①기업명, ②수강자성명, ③연락처/메일주소, ④취득한 회원ID번호를 JETRO서

울사무소 지재팀(jetroiprseoul@gmail.com)에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 후에 IPAT에서 수강 개시 안내를 해 드립니다.

3.응모마감

2011년 8월 31일까지, 선착순 40명

(단, 한국IPG 등록 기업 우선입니다)

4.교육프로그램

이번에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수강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통상 12시간 정도입니다.

과목명	수강기간	참고:수강료 (이번 신청은 무료입니다)
[전체] 지식재산기초, 창출, 보호, 활용		50,000원
[Part 1] 최성우 변리사의 지식재산기초	개시로부터 30일 이내	15,000원
[Part 2] 배경용 변리사의 지식재산창출		
[Part 3] 진희동 변리사의 지식재산보호		
[Part 4] 고영희 교수의 지식재산활용		

5.기타

지식재산에 대한 능력시험, IPAT(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라는 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관한 실무능력을 어느 정도 습득했는지 한 번 시험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 본 건에 관한 문의: JETRO서울사무소 지재팀

◎ 이와타니(일본어) / 조은실: 전화 +82-(0)2-739-8657

◎ 이메일: jetroiprseoul@gmail.com

IPAT(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란?

IPAT 지식재산능력시험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

로그인 · 회원가입 · SITE MAP

IPAT이란? IPAT홍보안내 시험접수 교육안내 고객센터

제3회 IPAT 지식재산능력시험

“지식재산능력시험”
동영상강의 OPEN!
e-IPAT 교육비호가기

· 시험 일: 11월 26일
· 접수기간: 11월 1일 ~ 11월 22일 (밤 12시까지)
· 시험장소: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 IPAT강의 전문 강사진 구성
· 출제범위와 교재 독자 구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공지사항 | 보도자료

8월 12~13일 시스템 서비스 중지안내	2011-08-05
성적인증서 발송 공지	2011-06-16
제2회 IPAT 성적표인쇄관련공지	2011-06-08
제2회 지식재산능력시험 수험표인쇄 안내	2011-05-24
제2회 시험 지역별 시험 장소	2011-05-23

시험접수안내

시험안내, 인터넷접수, 수험표 출력, 성적조회

연간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제 2회	'11.05.01~'11.05.24	'11.05.28	'11.06.10
제 3회	'11.11.01~'11.11.22	'11.11.26	'11.12.09

문의전화
(02) 3459-2777
(02) 3459-2888

IPAT 샘플문제 GO

IPAT(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란?

IPAT는 한국IPG가 발행하고 있는 「IPG information」 제7호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특허법,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 법규에 대해 IP담당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과 함께 실무적용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선행기술 검색, 지식재산전략 수립, 기술의 가치 산정법 등도 그 범위에 해당합니다.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식재산 기초, 창조, 보호, 활용 등 4분야로 나누어 출제하며, 문항 수는 60문항 5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 출제됩니다.

합격·불합격이 있는 자격시험이 아닌 영어의 TOEIC 시험처럼 자신의 지식재산 분야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990점 만점으로 4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900~990점:1급, 800~899점:2급, 700~799점:3급, 600~699점:4급, 600점 이하:무급)

2011년 제3회 IPAT 시험날짜 안내



- ◎ 제3회 시험날짜: 2011년11월26일(토)
- ◎ 제3회 접수기간: 2011년11월1일~11월22일
- ◎ 제3회 시험장소: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

http://www.ipat.or.kr

「한국지재보호정보세미나」개최에 대해

〈개최개요〉

한국에서는 2010년9월에 한국특허청(KIPO)에 상표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되어 특허청 직원이 경찰대가 되어 모방품에 대한 단속권한을 행사를 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시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방품이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는 일이 잦다는 실태에 맞춰 온라인 쇼핑물의 모방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찰대와 연계 단속을 실시해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기업의 제품과 관련해 중국에서 제조된 모방품이 한국으로 유입되거나 온라인상에서 침해품이 판매되는 등, 모방품 피해 문제는 현재에도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모방품 대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표특별사법경찰대 및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활동실적과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각 일본기업의 한국에서의 모방품 대책에 일조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내에서 여러 모방품 대책을 실시해 모방품 배제에 효과를 거두어 온 일본기업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해, 한국에서의 유효한 모방품 대책 사례로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측 참가자〉

- ◎ 한국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 한국IPG(제트로 서울사무소)

〈개최개요〉

- ◎ 날짜 : 9월28일(수)
- ◎ 장소 : 제트로 본부(5층회의실: <http://www.jetro.go.jp/jetro/profile/map.html>)
- ◎ 인원 : 100명
- ◎ 내용 : 강연시간에는 질의응답(10분 정도)가 포함

14:05	개회
14:10~14:40	한국의 모방품 대책 현황, 한국IPG의 모방품 대책 사업 / 한국IPG(제트로 서울사무소 부소장) 이와타니
14:40~15:30	상표특별사법경찰대의 실적, 사례 / 한국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장 오영덕
휴식	
15:40~16:30	KIPRA에 의한 인터넷 모방품단속활동 실적, 사례 / 한국지적재산보호협회 본부장 이민재
16:30~17:20	한국의 모방대책 사례발표 / 포켓몬코리아 대표 하세가와 히로후미

※KIPRO 및 KIPRA의 강연은 한국어로 진행(동시통역으로 진행)



수십만원대 고급 헤드폰, 정교한 짝퉁 기승 (6/28)

- 아이폰의 출시로 헤드폰이 패션 아이템이 되면서 최근 고급 헤드폰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짝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짝퉁 제품은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한 위조 솜씨로 만들어져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많다.

정규품보다 가격이 싼 대신 공업용 본드 등을 마무리재로 사용하여,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음새가 벌어지거나 플러그 부분이 꺾이는 케이스가 많고 정품이 아니어서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정규품인 줄 알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다.

상표권특별사법 경찰대, 특별단속 실시 (6/28)

- 한국 특허청의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5월25일~6월24일까지 한 달 동안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관광지 주변 등의 위장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사범 25명을 검거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의 유통업자들은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비밀 창고를 따로 마련하여 놓고 단골손님에게만 가짜명품을 판매하는 등 현장 단속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점점 위조품의 판매수법이 지능화되고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위조품 단속현장에 나가보면 위조상품 판매자는 물론이고 구매자들도 이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다. 위조상품이 범람하게 되면 건전한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를 망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발된 위조상품, 「루이 비통」이 최다(7/14)

- 특허청은 2011년 상반기 동안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위조상품 사범 71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만8천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완성품 적발수량별로는 루이비통이 가장 많은 1,232점, 레스포색 1,180점,

샤넬 668점, 구찌588점, 나이키 344점 순이다.

압수 품목별로는 가방류는 레스포색이 1,180점, 루이비통 815점, 구찌 306 점 순이었으며, 신발류는 나이키 197점, 샤넬 91점, 구찌 85점, 장신구는 루이비통 257점, 샤넬 235점 순으로 집계됐다.

짝퉁 IT제품,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유통 (7/19)

- 그동안 가방, 의류 등 패션용품과 생활용품에 집중돼 있던 짝퉁 판매가 IT기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내의 주요 오픈마켓에서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판매하고 있는 ‘날개 없는 선풍기’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이외에도 PC마우스와 키보드와 같은 IT소모품, 스마트폰 관련 주변기기 등도 판매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제품은 단 시간 내에 판매를 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치고 빠지는’ 짝퉁업체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유통 단계에서 보다 근본적인 짝퉁 판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 특허청, 국제특허분쟁 적극대응(7/28)

-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나 필립스의 서울 반도체 제소등, 최근 들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기업의 특허공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1년 상반기 국제특허소송이 대기업 및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특허청 자체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2011년 상반기 국제특허소송 사건은 총 33건 중에서 대기업 관련 사건이 26건 (79%),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건이 30건 (91%)을 차지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국제특허분쟁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6일(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최근 국제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향후, 국제특허분쟁의 문제점의 분석을 통해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에 대해 기업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기업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상세한 기사, 그 밖의 뉴스에 대해서는 『한국 지적재산 뉴스』를 봐 주십시오. URL: http://renew.jetro-ipr.or.kr/newsLetter_list.asp



File No.33

미래의 스마트 가전이 보이는 「창」

삼성전자는 휴대폰으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스마트 에어컨과 구글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 냉장고를 발매했다. LG전자도 올해 4월에 국내에서 출시한 스마트 냉장고를 필두로 인터넷에 무선 접속 가능한 에어컨과 세탁기, 오븐,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가전을 올해 안에 상품화할 계획이다. 귀가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에어컨을 작동시켜 두거나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식품리스트를 확인하면서 쇼핑을 하고, 오븐이 최신 조리법을 가르쳐 주는 등...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과연 어떤 스마트 가전이 등장할 지 궁금해진다.

미국 애플사의 다기능 휴대폰(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이 계기가 되어 촉발된 「스마트폰」 선풍이 벌써 가전제품으로 번져 올해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2011에서도 스마트 가전이 상당수 전시되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향후 스마트 가전의 진화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스마트 가전의 기능을 보면 ◇각종 센서와 정보통신 기술을 갖추어 가전제품이 스스로 상황을 인식해 최적의 운전을 자동으로 실시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외출한 상태에서 조작이 가능 ◇관리 시스템과의 쌍방향 통신에 의한 소프트웨어와 각종 콘텐츠의 갱신, 추가를 통해 기능향상과 신기능 추가가 가능해짐 ◇스마트 그리드(전력의 효율적 배분)기술과 결합되어 전기요금에 저렴한 시간대에 작동 ◇고장 발생시 원격으로 온라인 진단이 이루어져 신속한 수리가 가능등의 기능이 현재 상품화가 진행중인 초기「지능형」가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기능들은 현재 기술에서 보자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개발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그 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당시 그다지 발달되지 않았던 통신환경과 고객의 통신비용 때문에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최근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그리드 같은 기술이 접목되고 통신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현재의 스마트 가전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활발한 제품개발동향을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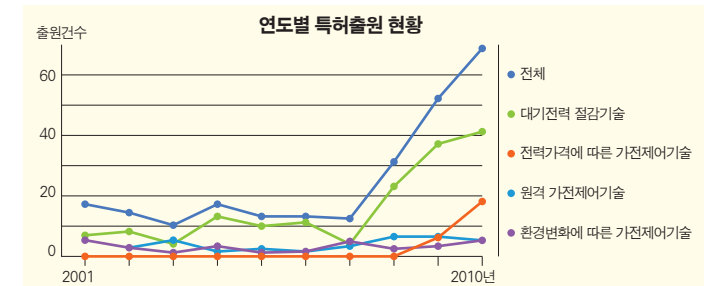
필자는 이전에 한 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 가전 전반의 특허출원을 담당했었습니다. 각국 기업의 특허출원 동향을 관찰하고 있노라면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각 기업이 스마트 가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특허공보를 통해 각 기업들의 활발한 개발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체트로HP에서 한국「기술동향」(일본어 번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jetro-ipr.or.kr/tech_list.asp〉). 특허공보를 분석한 한국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06~10년) 스마트 가전의 특허출원은 매년 86%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대별 전기요금에 따라 절전 운전하는 기술의 특허출원은 2009년에 등장해 2010년에는 3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대기업의 출원비율이 83%에 달하고 있어 대기업에서의 기술개발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가 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 정부가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2010년1월)으로 중장기전략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스마트 그리드 도입추진 방침을 제시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기술(IT) 기업이 지금까지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눈부신 약진을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의 하나로 「현지 수요에 맞춘 제품개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란을 내장한 텔레비전, 모기를 죽이는 에어컨, 전통의상 사리의 세탁기능을 추가한 세탁기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스마트 가전에서도 한국 기업이 고객들의 수요에 맞춘 과감한 개발을 추진해 폭넓은 상품 라인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한국기업들의 동향은 특허정보의 「창」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벤 해설자〉

VERITAS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병석 변리사

71년생, 96년 KAIST기계공학대학원 졸업, 96~01년 현대모비스 근무, 02년 변리사시험 합격, 03~04년 특허법인DARAE 근무, 05~11년 KBK특허법률사무소 근무, 11년7월부터 VERITAS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

(감수: 일본무역진흥기구=체트로=서울사무소 부소장 이와타니 가즈오미)





File No.34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활용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

「귀사의 제품은 당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 어느 날 이러한 경고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 이러한 경고장을 받은 경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한국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군가가 침해하고 있다면? 어찌됐든 많이 당황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경우, 변리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무효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법원(재판소)을 통해 침해유무 판결을 받는 것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것이 한국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허범위확인심판”이다.

활용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

한국에서 이 제도는 권리자측과 비권리자측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제도 중 하나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판정”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조사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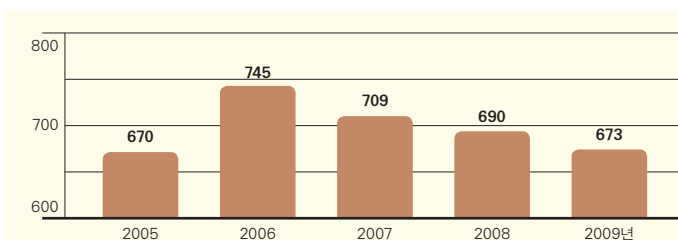
일본의 판정 청구 건수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합계
2008년	31	0	12	12	47
2009년	32	1	10	7	51

자료: 2010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그러면 한국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건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특허만으로도 수백 건이며,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까지 합치면 연간 1,000건 이상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건수 추이



자료: '특허와 상표'(2011년 5월 발행)

“판정” vs “권리범위확인심판”

한국에서는 왜 범위확인심판이 애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본의 판정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권리범위에 포함된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심판 제기가 가능하며, 3명의 심판관에 의한 합의체에서 심리되어 심판제기로부터 조기에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효력도 일본 판정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공적 기관에 의한 감정으로, 사실상 사회적으로 봐서도 충분히 존중되는 권위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본의 판정과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이 만큼 활용되고 있을까요?

정확한 해답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반 법원의 판결과 특허심판원 및 그 상급심인 특허법원의 결과가 상이하면 국민들 대다수는 상당히 놀랍니다. 때문에 자연히 일반 법원의 판결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대체로 일치될 소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일반 법원의 판결보다도 일찍 나오기 때문에 유리한 심결이 나올 경우, 그것을 일반 법원에 제출하면 그것은 상당히 유력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일반 법원의 판결이 상호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새로운 경향

이전에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60%이상이 「당사의 제품은 상대방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로 「상대방 제품은 당사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청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허권리자의 승률도 2005년 17.5%에서 2009년 21.5%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내의 특허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범위확인심판도 더욱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해설자〉

NAM&NAM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원녕

1966년생. 인하대학교 전자공학석사, 2000년 변리사시험 합격, 현 NAM&NAM 특허사무소 특허1부장(파트너변리사), 현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현 일본KTK(간사이특허연구회)회원.

(감수: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서울사무소 부소장 이와타니 가즈오미)

